



9일(한국시간) 미국 PGA 투어 마스터스 골프대회가 열린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천436야드)에서 최경주가 1라운드를 마친 뒤 타이거 우즈와 선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혹시 이번에도... '쇼트트랙 대표 선발' 앞둔 빙상연맹 좌불안석

'이정수 파문' 진상조사위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 영입

오는 23일과 24일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에서 열리는 2010-2011 쇼트트랙 대표선발전을 앞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머리가 아프다.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와 작년 4월 대표선발전이 '국제대회 메달 나눠먹기'를 노린 '짜고 친 고스트'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번 선발전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리기 때문이다.

선수들이나 코치들도 이번 선발전에서는 몸을 사리겠지만 그렇다고 빙상연맹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선수들이 짜고 벌이는 '팀플레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연맹의 고민이 있다.

연맹 관계자는 "솔직히 오른 레이스(자기 레인) 없이 치러지는 경기)에서 선수들의 짬짜미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대회 전에 코치와 선수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해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선수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심판들이 더욱 강력하게 팀플레이

를 잡아내야 한다"고도 했지만 대표선발전을 맡아 치르는 심판 5명은 모두 외국인이라서 이마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선수, 선수부모, 코치 등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지 몰라 빙상연맹은 아래저래 좌불안석이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0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불거진 '이정수 파문'과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에 종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변호사, 빙상연맹 외부 인사 등을 대거 합류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볼턴 주장 "이청용은 볼턴에 꼭 필요한 선수"

"볼턴은 이청용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최근 리버풀 이적설이 떠도는 이청

용(22·볼턴)에 대해 볼턴의 사령탑이 오언 코일 감독이 이어 팀의 주장인 케빈 데이비스(33)까지 이청용의

볼턴 잔류를 희망하고 나섰다.

데이비스는 9일(한국시간) 영국 랭커셔 지역 언론인 '클릭 링커서'와 인터뷰에서 "이청용은 다음 시즌에 더 발전할 선수"라며 "이청용의 잔류는 팀은 물론 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족

▲조정부·박양순씨 차남 대일군 김재홍(전남도 기업유치과장)·최인숙씨 차녀 민지양=10일(토) 오전 11시 광주 상무리츠컨벤션 웨딩홀(2층 자스민홀).

▲현영환(전 영암 금정면 예비군 중대장)·최금희(아네스미용실 원장)씨 장남 경민군 김형돈·이정화 씨 장녀 진아양=11일(일) 오후 1시20분 광주 상무지구 예술의전당 3층(아이아몬드홀).

▲장원식(광주미화 대표)·최금숙씨 차남 재영군 조기영(덕촌건설 대표)·박경순씨 장녀 강옥양=11일(일) 오전 11시 30분 삼영예식장 3층(다이아몬드홀).

▲홍석태(전남도 건설방재국장)·최향남씨 삼남 영균(남양유업)군 조문환(공군 제1전투비행단)·김명희씨 장녀 은희(롯데카드)양=4월 17일(토) 오전 11시 10분

분 광주 상무지구 예별루션 웨딩홀 1층(세이지홀)

▲박동근씨 차남 지성군 김길환(전남화약 대표)·추공심씨 장녀 하나양=18일(일) 오전 11시30분 조선컨벤션 웨딩홀 3층(컨벤션홀)

부음

▲김정환(전 광주일보 전무이사)씨 별세 최난오씨 상배 의성(현 대중장비 전남판매주식회사)·훈규·영민·영미·진경씨 부친상=발

인 11일(일)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02-2258-5940.

▲정금자씨 별세 진우상·영성·정숙·화자·미자·양자·연심씨 모친상 정금철(사랑의열매 전남지회부장)·김옥렬(전 광주일보 기자·전남대학교 신문방송사 편집위원)·임덕만·백택근씨 빙모상=발인 11일(일) 화순군고려병원 장례식장. 061-375-4500.

▲박이남씨 별세 김영희·명희·정희(기업은행)·성희·순덕씨 모친상=발인 11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515-4488.

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재율씨 별세 정전(대회특수인쇄대표)·대전(대전섬유대표)·후전(삼성화재)·명전(삼정KPMG 부회장(前 EBS부사장))·오전·옥희·복희씨 부친상 오기현(대림종합장식)씨 빙부상=발인 10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조천행씨 별세 홍근·배근·기근·근숙·은숙·윤숙씨 부친상=발인 10일(토) 무등장례장 203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 예식장	
호수 227 - 4000	
故 박 순 레 님 (94/75세)	
구/부부 김승환/서은애, 김숙희/서숙희 女/婿 김승덕, 김기태, 김민수/조승만 김기화/김현선, 김영록/박인웅 김병희/이상희	
호수 401 호	
별 일 04월 10일	
장 지 영락공원	
故 김 주 현 님 (님/79세)	
구/부부 김성관/전미현, 김영길/세근숙 女/婿 김종희/김기봉, 김광숙/정지승 김은숙/이주상, 김성례/ 김성례/조규상, 김광희/강선현	
호수 201 호	
별 일 04월 10일	
장 지 보성 파천 선영	
신기고인의 명복을 빙니다.	
나온주차장 - 정갈한 음식!	



최경주·양용은 '태극기 휘날리며'

마스터스 골프... 1R 우즈 제치고 공동 2위

한국골프를 대표하는 최경주(40)와 양용은(38)이 명인 열전 제74회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휘날렸다.

특히 최경주는 전 세계 골프팬들과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해야 하는 부단 속에서도 8년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한 노련한 레전드 타이거 우즈도 1언더파 68타를 치며 공동 7위에 올라 5개월여간의 공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올 시즌 세계랭킹 90위 밖에 머물다가 4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마스터스 출전권을 따낸 최경주는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천436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헤쳐들여 5언더파 67타를 쳤다. 지난해 PGA챔피언 우승자 양용은은도 최경주와 같은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며 노장 프레드 커플스(미국·6언더파 66타)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라 한국골프의 위용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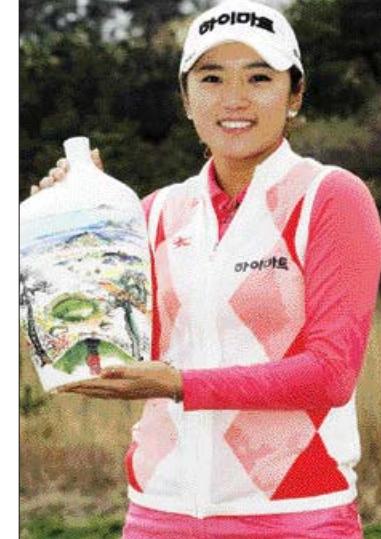
이보미 KLPGA 개막전 우승

이보미(22·하이마트)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0년 국내 개막전에서 개인 통산 두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9일 제주 레이크힐스 골프장(파72·6천312야드)에서 열린 김영주골프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쳐 함께 3언더파 213타로 정상에 올라 상금 4천만원을 받았다.

대회 기간 내내 강풍이 부는 가운데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선수는 이보미가 유일했고 1오버파 217타를 친 2위 윤슬아(24·세계투어)와 격차도 4타나 됐다.

이승현(19·하이마트)도 3타를 줄이며 추격전을 펼쳤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해 김해정(24·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함께 공동 3위(2오버파 218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CBS

노컷뉴스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채널 080-800-1031

RADIO

CBS

거제교방유·전남교방유
CBS

080-800-1031